연중 제28주일 복음 나누기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루카 17,18)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발표합니다)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I) - 루카 17,11-19
-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 17 11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래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 12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 13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 14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 15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 16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 17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 18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 19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세밀히 읽습니다.
- 처음부터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읽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약 5분 정도)
- 한 사람씩 특별히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래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기원 전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시리아제국의 식민지 정책으로 이주와 혼혈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유대인으로부터 줄곧 배척과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갈릴래아는 지형적으로 볼 때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교량 역할을 했기에 외세의 침략도 잦았고 주로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들이 살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쩌면 음지인 두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전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수용하고 있는 곳을 향해 우리도 나아가 봅시다.

나병(한센병 - 그 당시에는 온갖 피부병을 나병이라고 불렀습니다)은 그 시대에 천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병을 얻은 것만으로도 힘든데다가 가족들과도 철저히 격리되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또 하나의 계층인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서 진정한 용기를 봅니다. 우리도 치유받기 위해서는 변두리의 삶에서부터 중심부로 나와야 합니다.

불치병을 앓고 있는 이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무엇일까요? 죽음과도 같은 저주스런 자신의 운명으로부터의 엑소더스(탈출)가 아닐까 합니다.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14절)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인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이라도 간절하게 하느님께 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청에 대한 응답을 받으셨나요? 혹시 ‘아니오.’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 기도가 잘못되고 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조금 더 기다려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꼭 듣고 계십니다. 나병환자들의 청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치유 받은 이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15,16절) 뒷간에 가기 전 마음과 다녀온 후 마음이 다르다고 하더니 아홉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혹시나 치유 받은 후 당장 사제에게 먼저 달려가지나 않았을까요? 그리고 가족들, 자신의 핑크빛 미래 등등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잠시 생각을 해 봅시다. ‘감사’의 마음입니다. 외적인 부분을 치유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 내면적인 치유 또한 해 주시며, 인간으로서의 본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신 분께 대한 ‘감사’ 말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하느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냉대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천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9,52-56)와 착한 사마리아인의 예화(10,29-37)가 유일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특별히 후한 이유는 혹시 내침과 소외 안에서 진정 끌어안아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율법을 내세우면서도 진정 그 정신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해 일침을 놓으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에서 신앙을 가진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배은망덕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서는 베푸신 기적을 거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감사’를 입고 살아가는 인간과 간과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19절) 이제 그는 납작 엎어졌던 예전의 삶으로부터 일어나 새 삶, 곧 부활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마침내 구원을 이끌어 냈고, 그 구원은 하느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와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거저 베푸시는 하느님의 은총과 우리의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 목상나누기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체험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나눠 주십시오.*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7. 마침기도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

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8. 안건토의

9. 기타토의(공지사항)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